

몸짓과 붓질이 그리는 세상과 마음의 풍경화

- 나의 회화: 화획(畵劃) 프로젝트 -

임상빈

www.sangbinim.com

나는 작가로서 사진과 회화에 주목한다. 물론 21세기 들어서는 한동안 사진에 더욱 집중하며 '구상적인 풍경 이미지'를 깔끔하게 담아내는 매끈한 화면에 시각적으로 끌렸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다른 관심도 생겼다. 그건 바로 '추상적인 마음 이미지'를 끈적하게 담아내는 우물투들한 화면이었다. 그리고 보니 몹시도 촉각이 그리웠나 보다. 예컨대, 시각예술에서는 빛이 필수적이다. 특히나 내 회화는 상당히 표면이 '부조적'이라 '조명'의 강도, 색상과 각도 그리고 관람의 거리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즉, 이와 같은 '촉각적 시각성'은 '물리적'으로 직접 감상할 때 더욱 그 진가가 드러난다.

한편으로, 드로잉을 포함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몸짓'과 '붓질'에 주목했다. 이를 '화획(畵劃)' 혹은 'strokes' 프로젝트라 부른다. 드로잉은 일종의 '준비체조', 혹은 '명상'의 일환으로 내 마음의 작용과 몸의 행위, 즉 '흔적'과 '물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붓질에 회화는 더욱 '입체감'과 '색감', '물질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생생함'과 '관계성', '다층성'을 드러낸다. 마치 운동을 하면 근육선이 선명하게 잡히며 능름하게 살아나듯이.

구체적인 작업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표현적으로 붓질을 한다. 그리고는 무수히 많은 레이어로 이를 다듬으며 개별 획을 더욱 입체적이고 견고하게 완성한다. 그야말로 '일획이 만획이요, 만획이 일획'이다. 혹은 '돈오점수(頓悟漸修)'다. 마치 통찰의 씨앗을 뿌리고 정성으로 키우는 과정과도 같기에. 실제로 붓질마다 다른 붓을 다른 힘과 각도로 쓰면 앞으로의 작업에서 소위 존재의 조건, 즉 기초적인 토양이 '특성화'된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다.

마치 구체적인 시공의 조건과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시대정신'과 '방향성', '맥락'이 서로 다르듯이 나는 '추상적인 마음'을 각양각색으로 표현하며 '기운'과 '물성', '자국'에 주목한다. 즉, '수많은 종류의 붓질'이 얹히고설키며 춤을 춘다. 그야말로 '천태만상(千態萬象)', 우리네 '세상만사'다. 그래서 더더욱 '조형의 3요소', 즉 '형태'와 '색채', '질감'의 스펙트럼을 넓게 표현했다. 이를 통해 '다원주의적인 차이'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어울림'으로 '다양한 관계 맺기'를 시도했다.

예를 들면, 나의 '추상 풍경'은 내 마음속 '수많은 생각' 같기도 하니 내 안의 '작은 아이들'이라며 '의인화의 마법'을 부릴 수 있다. 만약에 모두 다 나라면 여기는 '다중우주'로 간주 가능하다. 한편으로, 내 눈에는 획 하나하나가 다른 얼굴로 보이는 데 그렇다면 '집단 초상화'가 된다. 혹은 이들이 배우라면 난 '영화감독' 그리고 연주가라면 난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나아가, 각양각색의 기운이라면 난 장풍을 쓰는 도사, 즉 '무림고수'다. 그리고 각종 영양소가 듬뿍 든 비타민 혹은 약제라면 난 '의사'다. 수 없는 몸짓이 축적된 블록체인이라면 난 'NFT'다. 미생물 소우주라면 난 하나하나 보듬는 '신'이다. 결국, 내 작품은 다양한 내용물을 담은 'X 함수', 즉

'그릇'이다. 그리고 '심신일체(心身一體)', 즉 절묘하게 '좋은 조형'과 '좋은 내용'이 아귀가 맞을 때 비로소 '좋은 작품'이 탄생한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세상 풍경'과 '마음 풍경'을 탐구하며 작업을 지속한다. '예술적인 상상'과 '비평적인 관점'에 따라 회화의 붓질 하나하나가 다들 각자의 의미 충만한 서사를 진행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와 같이 내가 가는 '인생길'이 여러분에게 나름 공감되고, 더불어 우리 각자 '내 인생의 감독'이 되어 모두가 멋진 영화 연출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란다.